

『분석심리학과 종교』 서평

이 정 배 · 이 한 영*

저자와 책에 대하여

『분석심리학과 종교』는 협성대 김성민 교수의 최근 저서이다. 사실 높은 용의 인지도로 인하여, 용에 관한 책들은 많이 출판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저술들은 용 심리학을 영성 또는 종교체험의 영역에서 접근하고 해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저자 역시 그러한 책들을 집필한 바 있다. 그러나 용 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체계적인 저서가 필요하다.

시중에는 몇 가지 개론서가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은 모두 칼빈 홀(C. S. Hall)이 저술한 하나의 책을 여러 출판사가 각각 번역한 것일 뿐이다. 또한 입문서 성격으로 출판된 다른 책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칼빈 홀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앞의 책과 내용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이 책은 외국학자의 번역서가 아닌 순수 국내학자의 연구저서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순수하게 용 심리학의 이론을 정리한 개론서는 아닐지라도, 이 책 전반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 용의 사상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보아 용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충실한 개론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책은 앞서 저술한 『용의 심리학과 종교』(1998)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미 흘러간 16년의 세월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지 않다.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전의 책을 대폭 삭제 수정하고, 보충보완하고 있기에, 새로이 저술한 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책이 다른 번역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책들이 종교나 종교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순수 심리학적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책은 융의 심리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중심주제인 신, 인간, 죄악, 구원, 삼위일체 등의 문제를 융 심리학에 대한 저자 특유의 통찰과 해석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모두 4부로 짜여 있는 이 책은, 제 1부는 “융의 생애와 사상적 특성”, 제 2부는 “융의 사상과 기독교”, 제 3부는 “자기와 개성화의 길”, 제 4부는 “분석심리학과 종교 및 콤플렉스와 정신병리”로 구성되어 있다.

융의 삶과 사상 그리고 종교적, 현대적 의미

제 1부에서는 유년시절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심리학의 대가가 되기까지의 융의 삶의 경험 및 융에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 사상, 정서 등과 관련된 수다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 사람의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글만을 읽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이 겪어 왔던 인생의 희로애락을 들여다 볼 때,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면에서 융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한 인간이자 한 사상가로서의 융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왜 융이 인간정신의 내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가, 왜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는가, 왜 신비주의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루터파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서의 출생과 성장, 유약한 아버지와 강한 어머니, 어린 시절의 부모의 불화와 별거, 홀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홀로 외롭게 놀아야 했던 고독의 경험, 자신의 환상체험과 어머니의 신비적 이중적 성격, 아버지 서고에서의 인문학서적 탐독과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국종교에 대한 지식 등은 모두 인간정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와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어린 시절의 경험담이다. 독자들은 융의 생애에 대한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장래에 정신병리, 종교 및 종교체험, 신비주의, 신화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 융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들 중에는 프로이트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다. 융의 삶의 여

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로이트와의 관계다. 이 글은 융이 정신과 활동 속에서 자신의 심리학을 구축한 이야기, 프로이트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 결별하게 된 직간접적인 동기나 배경에 대해 들려주고 있다. 성(性)의 문제, 종교에 대한 입장, 학문적 방법론과 성향의 차이가 결별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별이유를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동으로 해석하는 점이 흥미롭다. 즉 프로이트는 융에게서 부친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융은 프로이트를 극복해야 할 부친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독자들은 융에게 영향을 끼쳤던 여러 인물들, 도교사상, 만다라, 연금술, 원시부족 연구 등에 얽힌 쓸쓸한 이야기들과 만날 수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자신의 일생의 학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이야기들은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경험을 학문영역으로 옮겨 심리학의 한 축을 만든 융의 역량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제 1부는 종교에 대한 융의 입장과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융의 사상이 현대 속에서 의미를 상실해가는 종교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종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저자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저자에 의하면, 융은 기독교를 교리의 도그마에 빠진 종교, 영적인 나태에 빠진 종교, 유아성으로 퇴행하는 종교, 신앙의 전통적 내용이 의미를 잃어가는 종교,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현대에 열광적이고 악마적이며 파괴적인 유사종교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 이유를 기성종교가 제 기능을 상실한 정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종교가 생명력을 얻고 온전하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융은 종교가 영혼의 치유와 인격의 온전한 성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저자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융 심리학과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영혼의 문제야말로 종교가 다루어 온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일 터이다.

융 심리학을 통해 본 신과 인간, 죄와 구원의 문제

제 2부에서 저자는 인간, 죄악, 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다시 재구성하면 인간과 신, 죄악과 구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융의 수다한 개념들과 이론들을 접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교리들과도 만나게 된다. 신과 인간, 죄와 구원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아닌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은 왜 이와 같은 순서로 주제들을 배열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그렇게 이해된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쳐, 그런 연후에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묻고 이를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켜 풀어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주요주제들을 융 심리학을 통해 조망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먼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융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이란 수많은 대극적인 요소로 구성된 전체적 또는 전일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대극의 합일을 통해 전인격적 존재, 전일적 존재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정신은 전일성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적 에너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융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관의 핵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외적 인격과 내적 인격, 심리학적 대립 유형 등 다른 대극에 대한 융의 학설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 의식과 무의식의 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 상징, 억압, 투사, 원형, 콤플렉스, 그림자, 페르조나, 아니마/아니무스, 내향성과 외향성,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 모두가 융 심리학이 파악한 인간정신의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의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전일적 인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융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정신이 추구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융의 심리학은 조화와 균형의 심리학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융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은 그 자체로 의인도 죄인도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또한 융 심리학에서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된 전인적,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동양적으로 말하면, 성인(聖人)의 도(道)를 추구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독교에서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며 신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 없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여기에 융 심리학과 기독교 사이의 인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융 심리학에서는 죄와 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자는 융 심리학을 원용해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며, 또한 기독교의 원죄교리와 융 심리학의 인간정신의 대극구조를 유비적 관계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융이 그러했듯이, 죄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고, 현상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다.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은 대극의 균형이 파괴될 때 생겨난다. 즉 어떤 이유든 대극의 균형이 깨지면서 잠재되어 있던 죄가 리비도의 분출과 더불어 악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원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자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중을 헤아려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범죄와 달리 원죄는 본능적이다. 원죄란 죄의 씨앗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유사하게 융 심리학에서의 악은 인간 정신 안에 있는 잠재태인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당기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악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에 대한 융의 비판적인 성찰이다. 중세 초기의 교부이며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놓았던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융은 이에 대해 “악은 선의 그림자”라고 주장했다. 즉 악은 그 자체로 어떤 본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읽는 독자들은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한다. 마니코의 이원론, 선과 악의 이원론에 대항하여 철저하게 선의 일원론을 주장해야 했던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규정은 인식론적이면서도 존재론적이다. 선은 어둠에 가린 세상을 비추는 존재의 빛이며, 플라톤 동굴의 어둠 속에서 나와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인식이다. 이에 비해 융의 악에 대한 규정은

철저하게 심리학적이다.

악의 문제에 대한 어거스틴과 융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의 본질적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어거스틴에게 악은 전적인 부재이며 실재가 아닌 것에 비해, 융에게 악은 아직 현상으로 발현되지 않은 본능의 일부라는 것이다. 융에게 악은 현상으로 출현할 때에야 비로소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이 책에서 악의 현상학이라는 이름 아래 다루고 있는 콤플렉스, 억압, 투사, 신경증도 그 자체로는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악은 현상이 문제다. 융 심리학에 있어서 죄와 악의 문제는 철저하게 심리적 현상, 즉 정신현상의 문제다. 왜 인간은 죄악을 행하며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물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 책은 이 문제를 현상적 차원 내지 정신 병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콤플렉스 그 자체는 열등의식, 잠재의식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는 악도 선도 아니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아울러 갖고 있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동적 특성을 가진 콤플렉스가 공포, 불안, 폭력 등을 통해 환자를 괴롭힐 때이다. 더 나아가 강박증, 편집증, 정신분열을 일으켜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 때이다.

억압은 투사나 퇴행을 불러오기도 하며 환상에 젖거나 신경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무의식의 누멘적 이미지는 죄의 원인을 다른 대상에 투사하여 악마, 괴물, 마녀 등을 만들어 적개심과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상의 언급들을 볼 때, 융 심리학에서의 죄악의 문제는 결국 인간정신의 부조화, 불균형에서 오는 정신현상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신의 문제를 융 심리학적 입장에서 조망하고 있다. 융이 언급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심리학적 테두리 안에 있으며, 인간정신 안에 있는 존재다. 어떻게 가장 전일하고 가장 초월적인 존재를 인간정신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간 밖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심층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추구했던 기독교 영성가들 이라면 이러한 주장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를 “우리-안에-있는-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정작 융의 주장에 귀 기울이노라면, 적지 않은 당혹감에 머뭇거리기 쉬울 것이다. 융은 하나님을 콤플렉스, 원형, 신의 그림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융에 의하면,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어떤 감정적인 것 주위에 모인 콤플렉스에 붙인 이름이며, 하나님의 이미지는 원형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콤플렉스의 일종이다.

그러나 융에게는 하나님의 실재가 무엇이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현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인간의 정신 안에서의 자기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활동을 하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현상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따라서 융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이미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지전능이나 진선미 등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종교가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하고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미지에 이처럼 강력한 리비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신요소는 신으로 표상된다. 하나님은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며 서로 반대되는 충동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도록 하며 전일적 존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강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주고 삶의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과 과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구원의 의미가 드러난다.

융은 인간을 전일성(통합정신)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대극의 균형이 깨어질 때 죄악(행악)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불균형한 충동들을 통합시키면서 통합적인 전일적 존재로 인도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구원은 분리, 분열된 정신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정신통합의 치료과정인 것이다.

이를 종교적으로 보면 어떠할까? 실제 환자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며 정신치료를 통해 그 초자연적인 악한 힘에서 벗어났다고 느낀다고 한다.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초월적 세계에서 오는 은혜(자기원형에서 오는 힘)에 의한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더구나 이 구원의 힘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폭넓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융은 정신치료를 단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로만 보지 않고 사람 내면에 있는 여러 정신요소들을 통합하여 정신의 전일성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정신의 통합과 전인적 인격의 발달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과제는 종교가 추구해온 이상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정신의 온전히 통합되지 못하여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치료를 통해 전인적 인격을 형성해 나아감으로써 온전한 세계관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인간, 죄, 신,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다.

자기와 개성화

‘자기(自己)’와 ‘개성화(個性化)’는 융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융 심리학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 두 개념을 각각 독립된 장에 할애하며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먼저 이 책은 융 심리학에 있어서 ‘자기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인간 정신의 중심을 나타내는 정신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의식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전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정신요소는 자아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요소로, 사람들의 내면에서 내적 지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융은 이를 ‘자기’라고 불렀다. 자아가 의식의 중심인데 비해, 자기는 정신 전체의 중심이다. 자기는 자아 위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고 있는 정신의 전체성을 나타낸다. 융은 인간정신의 모든 흐름이 이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고 주장했다. 자기는 감추어진 본성이며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적 본성이다. 자기는 의식의 기반이 되며 의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 결국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이 전체성의 실현, 즉 자기의 실현인 것이다.

자기는 원형의 하나다. 원형으로서의 자기는 상징을 통해 체험된다. 이 상징은 주로 동그란 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성과 초월성을 표현하는 자기의 상징이다. 종교에 있어서는 만다라의 원, 십자가 등이 대표적인 상

징이다. 또한 용은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해 가까운 형태의 자기원형 또는 그 이미지로 보았다.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부처의 이미지와 함께 자기를 나타내는 상징 가운데 가장 발달되어 있고 가장 분화되어 있는 상징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은 원형의 삶이라 하겠기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원형이 갖고 있는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결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 진리, 생명, 빛, 선 그 자체이다. 누구도 이를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용은 이러한 긍정의 빛만 가지고 있는 원형의 부정적 측면도 함께 볼 것을 제안했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말을 소개한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예수의 그림자, 빛과 어둠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스도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러한 본성을 인정하라는 말인가?

이 말 역시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악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처럼, 이 문제를 현상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해하기 더 쉽다. 신 안의 선과 악, 그리스도 안의 선과 악은 본성의 영역 안에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악도 선도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발현되었을 때의 현상이다. 우리의 정신 속에서, 종교 안에서, 삶 속에서 빛의 사자임을 강조하며 저질렀던 온갖 불의한 일들과 악행들을 떠올려보자.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표면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죄악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이유, 타종교·이방인들에 대해 교만한 이유, 중세에 마녀사냥이 벌어졌던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다. 악의 현상을 인정하자는 것은 악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함께 보자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더 나아가 자기실현이라는 궁극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빛과 어둠, 선과 악의 통합은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의 분별이 가져오는 폐해를 초극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개성화란 바로 그러한 작업이다. 개성화는 사람을 본능의 질곡에서 해방시켜준다. 개성화란 개인의 본래 타고난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플라톤적으로 이해하면, 상기를 통해 이데아의 본성을 직관하여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자신의 안에 있는 본래의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식으로 이해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신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 개성화를 정신의 발달단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다. 인격의 전체성을 실현하고 인격의 변환을 가져오는 개성화의 단계는 그림자에 대한 인식과 통합, 아니마/아니무스의 인식과 통합, 노현자(남성)와 태모(여성)의 인식과 통합 그리고 영적 아이인 자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결국 용에게 있어서 개성화와 자기실현은 인간의 목적이요 종교가 추구해야 할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서술들을 볼 때, 우리는 기독교 영성가들을 떠올리게 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혼의 3단계, 아빌라의 테레사의 7개의 성, 에크하르트와 신과의 신비적 합일과정 등은 모두 영성의 발달단계, 즉 정신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는 정신의 통합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용의 개성화와 자기실현의 과정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적 신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인간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교리 중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현대 종교가 영성의 깊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바일 것이다.

삼위일체론, 영지주의

죄와 구원의 문제, 인간과 신에 대한 문제 이외에 이 책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고스-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문제(역동적 단일신론과 양태론적 단일신론),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의 논쟁과 정립(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인성과 신성의 관계(삼위일체론과 구원론)이라는 소재를 아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론이 어떠한 과정과 논쟁, 힘의 대결을 통해서 도그마로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융의 입장과 사위일체론을 주장했던 융의 견해에 대해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논술하고 있다. 요지는 융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불완전한 형태로 보았다는 것이다. 융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도그마를 원형적인 것으로 보았기에,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보편적인 상징적 표상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삼위신관이 그러한 예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융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는 교리라고 생각했다. 융은 삼위일체론이 보다 완전해지려면 악을 악의 원리를 포함하는 사위일체의 신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의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는 삼위일체 신관에서 악의 원리는 선과 분리된 채 악마로 인격화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융은 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 크게 염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융은 사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여성적 요소가 보완되어야 전체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남성적으로 표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이 많은 주장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실재나 본성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융은 삼위일체교리를 상징적 표상이라고 보았다. 어떠한 것이 보다 완전한 통합적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인간정신의 구조 안에서 볼 때, 삼위보다는 사위가 보다 더 완전하게 정신을 합하며 보다 더 온전한 정신세계를 구현한다고 보았을 터이다. 이것이 융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정신은 선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도, 악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인간정신은 생성적이며 창조적인 측면과 파괴적이며 공격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융은 악과의 끝없는 이원적 대결로 인해 고통 받을 것이 아니라, 악을 인간 정신 안에서 통합함으로써 정신을 치료하고 온전한 정신을 구축함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 책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인간정신의 분열성과 통합성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책이 영지주의를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 속에서 공부정적으로 기독교 안팎에서 긴장과 대결관계

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영지주의에 관한 역사적 심리학적 분석은 실로 중요한 과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영지주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사료, 문헌,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독자들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은 영지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특성, 영지주의 사상과 제의,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영지주의 우주관, 신관, 인간관, 구원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용 자신이 연금술, 영지주의, 신화 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창시자였던 것으로 볼 때, 영지주의는 용의 분석심리학이 다루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영지주의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신적 제의, 주술적 신화적 사고, 수많은 비의적 상징, 그리스도론에 있어서의 가현설, 순수영혼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영육이원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적 비의 속에서 용이 발견하려고 했던 것은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인간의식의 변용을 통해 전일적 존재가 되려고 했던 인간정신의 지향성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억압은 기독교의 그림자의 억압이라고 하는 저자의 말에 심분 공감하는 바가 있다. 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지혜종교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함께 볼 때, 죄와 은혜의 도식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기독교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평을 마감하며

이밖에도 이 책은 용의 동시성 이론, 콤플렉스와 연상검사, 콤플렉스와 정신병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평자가 보기에 이 글들은 이 책의 전체구도 속에서 별도로 마련된 보너스 성격의 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 4부의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따로 떼어 제 5부로 설정하거나 부록으로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제적인 임상내용, 검사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의 사상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으며, 용 심리학과 종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다른 책들도 많이 나와 있다. 프로이트와 용 이후에 심리학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융 심리학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인류의 유아기적 정신상태로의 퇴행이며 집단신경증이라고 보았다. 뇌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 바라보는 종교는 주로 수행이나 영성 등 종교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뇌의 반응이나 인지반응에 대해 연구할 뿐이다. 이에 비해 융의 심리학은 정신현상과 상징이 갖고 있는 통합적 초월적 기능을 통해 인간과 종교를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종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를 상실하며 소외된 채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김성민(2014) : 《분석심리학과 종교》, 학지사, 서울.